

제목: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
본문: 마태복음 5:1-6 (Mat 5:1-6)

(마 4:17)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"회개하여라.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"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.

* 누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

I. 깊은 ()을 느끼는 사람

(마 5:3)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.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

(고후 12:10)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. 내가 약할 그 때에,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.

II. 깊은 ()에 빠져 있는 사람

(4절)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.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.

(고후 1:3-4)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,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요, 4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.

(계 7:17)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,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,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.

III. 마음이 약해서 () 지내는 사람

(마 5:5)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.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은 크게 두가지 의미가 있다

(눅 14:11)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,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.

(마 20:26-27)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, 27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.

IV. ()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

(마 5:6)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.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.

(벧전 2:24)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, 나무에 달리셨습니다. 그것은,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라서 살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